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최승현(독립큐레이터)

부산시가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은 실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는 곧 부산을 표현의 자유와 열린 사고가 보장되는 사회로 만들어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문화예술 지원 체계를 갖추고, 무엇보다, 문화예술의 속성을 이해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춰야 지향할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목표를 실현하고자 선택한 부산시의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라는 방법론과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의문과 우려가 앞선다.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재임한 프랑스 19대 대통령 조르주 장 레몽 퐁피두(Georges Jean Raymond Pompidou, 1911-1974)의 이름을 딴 퐁피두센터는 1977년 개관한 프랑스의 국립미술관이다. 건축물의 지지구조와 파이프들이 노출된 독특한 외관과 방대한 근현대미술 소장품 등으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의심할 나위 없이 세계적인 미술관이다. 그렇다고, 오늘날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거론될 수 있는 미술관이 퐁피두센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현대미술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미술관으로는 영국의 테이트미술관이나 미국의 뉴욕현대미술관, 구겐하임미술관 등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굳이 퐁피두센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심각한 재정 문제 해결과 막대한 미술관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퐁피두센터가 세계 이곳저곳에 분관 설립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미술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분관 유치를 희망하는 상대에 요구하는 로열티와 운영비, 공간조성을 위한 투자 규모 역시 엄청난 수준이라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다. 뛰어난 사업가의 덕목은 상대에 대한 이해나 윤리적 배려가 아닌, 사업 주체의 이윤 극대화를 실현해 내는데 있다. 이를테면 퐁피두센터 분관 설립 프로젝트는 문화 선진국이라는 자체 프리미엄을 더해 판매하는 고가의 상품이고 사업이다. 본관의 입장료 수익과 공적 지원만으로는 유지가 어려웠기에, 퐁피두센터는 습관적으로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이다. 물론, 퐁피두센터를 유치 혹은 구매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공적 자금과는 무관한 기업이나 개인일 경우라면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이를 시도하고자 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더구나 큰 규모의 세금 투입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와 절차, 납세자들의 동의와 공감대라는 것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다시 궁금해진다. 부산시가 공청회 한번 없이 퐁피두센터 유치를 비공개적으로까지 끝내 추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빌바오 효과'라는 말 한마디에 구겐하임과 같은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로 도시재건

성공이라는 달콤한 꿈을 꾸는 지역이 세계 곳곳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빌바오의 실제 성공 요인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본다면, 구겐하임 미술관은 랜드마크의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가시적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빌바오는 도시재생의 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 민관협력체 ‘빌바오 메트로폴리스-30’과 그 시행을 위해 설립된 개발 공사 ‘빌바오 리아 2000’의 수십 년에 걸친 일관된 노력의 결실이다.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 하나로 완성된 하루아침의 기적이 아니다. 시민의 안락한 삶과 환경 재생을 위한 지속적인 민관협력과 소통, 오랜 시간의 투자와 끊임없는 노력, 역사와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빌바오 효과’라는 표면적 성공의 핵심 원동력이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부산시의 풍피두센터 유치 과정에서 그 핵심 원동력은 고려되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또 궁금해진다. 부산시가 풍피두센터 유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기적일까? 아니면 실적일까?

언론에 공개된 협의 내용에 따르면, 부산시는 미술관 분관 건립과 운영,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과 작품 대여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맡고, 풍피두센터는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과 작품 대여, 브랜드 사용권 및 운영 자문 등을 맡을 예정이라고 한다. 요컨대, 미술관의 핵심 기능은 풍피두 측에 모두 일임하고, 부산시는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꺼이 지원만 하겠다는 것이다. 풍피두센터에게 부산시는 꿈을 실현 시켜주는 요정 대모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미 부산에 두 개나 있는 시립미술관들을 장기 지원해 보면 어떨까? 풍피두센터 수준의 인력 확보와 시스템 구축을 보장하고, 간섭 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적인 미술관 대열에 들어서고 말 것이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혹, 이번 풍피두센터 유치가 겉보기와는 다르게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력에 의한 호혜적 관계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부산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프랑스에도 부산시립미술관 분관을 동일한 조건으로 설립하면 될 일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가.

예술의 관심은 관광객이나 수익에 있지 않다. 더구나 예술은 사회/경제 문제 해결의 수단도 아닐뿐더러, 그럴 수도 없다. 그렇다면 그것을 약속하는 예술기관은 무엇이란 말인가. 예술은 늘 질문을 던진다. 그렇기에 다시 묻는다. 부산이 삶의 터전인 시민들은 이 거대한 계획의 어디쯤 있는 것이냐고.